

19세기 중엽~20세기초에 창작된 한자서정시들의 주제사상적특성

리 동 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19세기에 창작되었으나 인멸되어 전해지지 않고있는 많은 작품을 적극 찾아내야 한다. 우리 나라에 이름있는 작가나 작곡가, 화가도 있고 인류문화의 보물고에 기여한 명작도 있다는것을 세상사람들이 알게 하여야 한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6권 173페이지)

19세기 중엽~20세기초는 우리 나라에 대한 유미렬강들과 일본침략자들의 침략책동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외래침략자들의 각축전장으로 전변되어 나라의 운명은 생사존망의 위기에 처하여있었다.

이 시기 진보적문인들과 인민들속에서는 나라가 처한 위기와 당대 인민들의 생활을 반영한 여러가지 문학작품들이 널리 창작되었으나 력사의 소용돌이속에 인멸되어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않는것들이 적지 않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창작된 문학예술작품들을 적극 찾아내어 널리 소개하는것은 우리 문학분야에 나서고있는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다.

19세기 중엽~20세기초에 창작된 한자서정시들의 주제사상적특성은 무엇보다먼저 반침략애국주의사상과 매국노들에 대한 규탄의 정신을 위주로 반영한것이다.

오래전부터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있던 일제침략자들은 이 시기에 들어와 우리 나라를 제놈들의 식민지로 만들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 인민의 민족적울분을 폭발시키고 외래침략자들 특히 일제침략자들에 대한 치솟는 증오와 항거의 정신을 분출시켰다.

우선 일제의 침략책동을 치솟는 민족적분노로 폭로규탄하면서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끝까지 싸울 불굴의 의지를 담은 한자서정시들이 많이 창작되였다.

대표적인 작품들로는 반일의병장인 류린석의 《왜놈의 명치<천황>과 이등박문을 저주하노라》, 《오랑캐들은 짐승이라》, 《세상을 걱정하여》, 《명치의 죽음을 두고》, 반일의병장 전해산의 《옥중에서 지음》, 강위의 《일본에서 돌아오다가 나라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등을 들수 있다.

류린석의 시 《왜놈의 명치<천황>과 이등박문을 저주하노라》에서는 우리 나라를 빼앗는데 앞장에 섰던 명치<천황>과 이등박문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악독한 짐승과도 같은자들이라고 격조높이 타매하고있다.

명치<천황>과 이등박문 이놈들아
네놈들의 죽을 죄는 하늘이 안다
이 세상에 가장 악독한 짐승들도
네놈들과 절대로 같지는 않으리

...

시 《세상을 걱정하여》에서는 사랑하는 조국을 빼앗은 왜놈들이야말로 우리 인민이 가장 증오하는 원썩이라고 하면서 왜놈의 대가리와 아가리, 몸뚱이전체가 더럽고 증오스럽다고 치솟는 분노를 터놓고있다.

시 《옥중에서 지음》에서는 서생의 몸으로 왜적을 반대하여 싸움의 길에 나섰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감옥에 갇힌 기막힌 처지를 통탄하면서 왜적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흐르는 강물도 흐느끼고 푸른 하늘도 피눈물을 뿌리며 비분에 떨고있다고 분노에 차서 규탄하고있다.

그런가 하면 강위는 시 《일본에서 돌아오다가 나라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에서 《아득히 먼곳에서 날아온 소식은 온몸을 소스라치게 놀라게 한다》고 하면서 나라를 빼앗은 원썩들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터뜨리고있다.

또한 일제침략자들과 야합하여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은 매국노들에 대한 치솟는 증오의 감정을 반영한 한자서정시들이 창작되었다.

대표적인 시들로는 《5적 7적에게》(류린석), 《나라 망한 소식을 듣고》(황현), 《뜻을 말하노라》(최익현), 《갑고리나루에서》(신정희) 등을 들수 있다.

시 《5적 7적에게》에서는 나라를 망하게 하고 백성들을 죽이게 한 매국역적들에게는 역적이라는 더러운 이름밖에 더 차례질것이 없다고 신랄히 규탄하고있다.

네놈들 보기에 는 자기들의 마음이
상패하다고 생각되는것이 아니냐
나라를 망하게 하고 백성들을 죽이는
그런 말이 그리도 쉽게 나온단 말이나
네놈들의 몸뚱이도 네놈들의 집도
우리에겐 아무런 리익도 없다
다만 네놈들에게 줄수 있는건
5적과 7적이란 더러운 이름뿐이다

시 《나라 망한 소식을 듣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있다.

조정에 앉은 놈들 먹을 갈아놓고서
매국조약 쓰는것을 일삼고있었으니
하루밤에 하늘이 통채로 무너졌으니
종묘의 령혼인들 그 아니 놀랐으랴
저 산에 가득 찬 소나무 잣나무도
시름겨워 한순간에 늙어버렸구나
이제는 나라없는 백성이 되었으니
소리내여 울수도 노래할수도 없구나
한강의 맑은 물은 목이 메여 울고
북악산도 얼굴이 이지러졌건만
티끌이 자옥한 한성거리엔

량반님네 여전히 오고갑시네
 력대의 간신놈들 몇몇이런가
 저 놈들의 래력을 읽어보아라
 나라를 팔아서 먹어치울망정
 나라위해 목숨바친 놈 하나도 없네

시에서는 일제에게 나라를 통채로 팔아먹은 매국역적들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터뜨리고있다. 시에서는 나라를 하루아침에 팔아먹고도 뼈젓이 한성장안을 나다니는 량반들이란 력대로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놈이 하나도 없는 더러운 놈들이라고 격분을 터뜨리고 있다.

또한 일제침략자들의 식민지로 전락된 나라를 걱정하며 몸부림치는 당대 인민들의 사상감정을 반영한 한자서정시들이 창작되었다.

대표적인 시들로는 정현덕의 《락동강 가는 길에》, 《물운대》, 강위의 《밤에 배안에서 조선땅을 지난다는 말을 듣고》, 김택영의 《다락에 올라서》, 최익현의 《대마도에 잡혀가서》, 류린석의 《기러기를 보며》, 《꿈에 본 고향》, 《노래》, 《바람은 사납게 일고》, 백락관의 《소안도를 떠나는 전날 밤 죽음을 각오하여 부른 노래》, 리건창의 《년말에 보는대로》, 《무망루에서 느낀바 있어》, 민영환의 《빼빼르부르그에서 고향을 생각하며》, 백관형의 《숨어 사는 선비》를 들수 있다.

남쪽에서 날아오는 기러기소리에
 시름많은 나의 잠을 흔들어 깨워놓누나
 깊은 밤 내 홀로 다락우에 올라서
 달빛이 가득찬 하늘만 바라보네
 어느 하루인들 그 어느때인들
 고국생각 잊은적 있었으랴
 멀고도 먼 삼천리밖에서
 또 이 한해를 보내야 하는가

이것은 김택영의 시 《다락에 올라서》이다. 시에서는 일제에게 빼앗긴 나라를 걱정하며 깊은 밤에도 잠 못들고 고국을 그리며 모대기는 심정을 터놓고있다.

이밖의 시들에서도 일치하게 관통되는 사상감정은 나라를 빼앗긴 민족의 설움과 일제의 발굽밑에서 신음하는 부모형제들에 대한 걱정, 나라를 구원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노래하고있다.

또한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운 애국명장들과 인민들처럼 나라와 민족을 지켜싸우자고 열렬히 호소하는 한자서정시들이 창작되었다.

대표적인 시들로는 리상수의 《조중봉의 사당에서》, 강위의 《통제영에서》, 김택영의 《의기의 노래》(2수), 《황현이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듣고》, 《안중근이 나라원썬 갇혔다는 말을 듣고》, 황현의 《론개의 사당에서》, 《리충무공의 거북선의 노래》, 《추금선생의 죽음을 슬퍼하노라》, 최영년의 《남이장군의 무덤에서》, 《충렬사에서》, 《홍의장군》 등을 들수 있다.

평안도의 장사 한사람
 두눈을 부릅뜨고 뛰어나왔다
 마치도 양새끼 때려죽이듯
 나라의 원수를 통쾌하게 죽였다
 내 다행히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가
 이 좋은 소식 듣게 되었구나
 국화꽃 만발한 꽃밭결에서
 너무 기뻐 노래하고 춤을 추노라

이것은 김택영의 시 《안중근이 나라원수 갚았다는 말을 듣고》이다. 시에서는 우리 인민의 철천지원수인 이등박문을 처단한 안중근의 애국적인 장거에 대한 소식을 듣고 너무도 기뻐서 어쩔줄을 모르는 심정을 토로하면서 안중근의 애국적인 행동은 조국의 력사와 더불어 길이 전해질 것이라고 노래하고있다.

시 《리충무공의 거북선의 노래》에서는 임진조국전쟁시기 거북선을 만들어 왜적들을 쳐부신 애국명장 리순신의 공적을 노래하면서 임진조국전쟁이 있는지 200년이 지난 이 땅위에 또다시 왜놈들이 쳐들어왔는데 리순신과 같은 명장이 나타나지 못하는 당대 현실을 두고 개탄하고있다.

이러한 감정은 임진조국전쟁시기의 의병장들을 노래한 시들인 《조중봉의 사당에서》, 《통제영에서》, 《홍의장군》에서도 그대로 표현되고있는데 작품들에서는 의병장들처럼 나라를 지켜 싸워야 한다는것을 열렬히 호소하고있다.

19세기 중엽~20세기초에 창작된 한자서정시들의 주제사상적특성은 다음으로 아름다운 조국산천과 우리 인민의 민족세태생활을 위주로 반영한것이다.

일제에게 국토를 강탈당한 당시의 현실은 사람들이 삼천리 아름다운 금수강산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더욱 새삼스럽게, 통절하게 느끼도록 하였으며 수천년을 내려오면서 우리 인민들이 누려오고있는 민족생활에 대한 소중함을 더욱 깊이 간직하게 하였다.

우선 아름다운 조국산천을 노래한 한자서정시들이 창작되었다.

대표적인 작품들로는 《구룡폭포》(곽종석), 《령은동에서》(신관호), 《금강산 제일봉》(강위), 《령남루》(신석균), 《창봉가는 길에》(정창시), 류린석의 《묘향산에 대한 회포》, 《설악산》 등을 들수 있다.

이 시기에 창작된 조국산천을 노래한 한자서정시들은 지난 시기와는 달리 단순히 조국의 아름다움만을 노래한것이 아니라 조국산천을 짓밟는 침략자들과 매국노들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함께 노래하고있다.

시 《구룡폭포》에서는 금강산의 구룡폭포의 장쾌한 모습을 펼쳐보이면서 온 골안을 뒤흔드는 우뢰소리같은 폭포의 울림소리는 간사한 무리들인 매국역적들을 내모는 소리같고 흰눈발을 날리는것 같은 물보라는 모기새끼처럼 덤벼드는 왜적들을 추상같이 꾸짖는것 같아가슴속에 쌓이고 쌓인 울분이 터쳐지는것 같다고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고있다.

또한 우리 인민의 고상한 민족생활을 반영한 한자서정시들이 창작되었다.

대표적인 시들로는 정현덕의 《소먹이는 아이》, 강위의 《농사집의 노래》, 김택영의 《농사집의 노래》(2수), 윤락호의 《허수아비》, 정학연의 《가을다듬이》, 《주인을 못 만나고》, 배

전의 《런밥따는것을 보며》, 최영년의 《강강수월래》, 《춘향가》, 《산유화》, 박종석의 《돌발의 풀피리》, 허훈의 《옛곡조를 따라》, 정익용의 《가을다듬이》, 리근수의 《민요풍으로》, 이정직의 《농사집의 기쁨》(3수) 등을 들수 있다.

시 《농사집의 노래》와 《농사집의 노래》(2수), 《농사집의 기쁨》(3수)에서는 근면하고 성실한 우리 인민들의 로동생활을 노래하고있으며 시 《가을다듬이》와 《춘향가》, 《산유화》, 《가을다듬이》에서는 집을 떠난 남편을 그리며 가정생활을 알뜰히 꾸려나가는 녀성들의 인정세태생활을 펼쳐보이고있다.

그런가 하면 시 《소먹이는 아이》와 《돌발의 풀피리》에서는 당대 인민들의 량만적인 생활을 그리고있다.

19세기 중엽~20세기초에 창작된 한자서정시들의 주제사상적특성은 다음으로 당대의 부패무능한 봉건통치배들을 폭로비판하고 인민들의 비참한 생활을 반영한 작품들이 창작된 것이다.

우선 당대의 부패무능한 봉건통치배들을 폭로비판한 한자서정시들이 창작되였다.

대표적인 작품들로는 황현의 《모내기》, 《토지측량하는것을 보고》, 《과거에 방이 붙은것을 보고》, 최영현의 《도끼를 들고 간하였네》 등을 들수 있다.

시 《토지측량하는것을 보고》에서는 나라는 안중에도 없고 저들의 리익을 위해 백성들을 착취하는 통치배들의 부패무능한 통치를 준렬히 규탄하고있다.

또한 당시 인민들의 비참한 생활형편을 동정한 한자서정시들이 창작되였다.

대표적인 작품들로는 류린석의 《앞마을의 가난한 집》, 《절량》, 김택영의 《추석전날 농사집의 탄식》, 리기의 《여름저녁》, 리진창의 《광성진에서 배사람들이 굶는 말을 적노라》, 박종석의 《농사집》 등을 들수 있다.

시 《앞마을의 가난한 집》에서는 한끼를 굶떨 쌀도 없어 고생하는 당시 인민들의 비참한 생활형편과 그속에서도 온갖 가렴잡세를 받아들이려고 피눈이 되어 달려드는 관리들과 부자들을 신랄히 비판하고있다.

이처럼 19세기 중엽~20세기초에 창작된 한자서정시작품들은 전반적으로 당대 사회현실을 비교적 진실하게 반영하고있다.

이 시기에 창작된 시작품들에는 창작가들의 세계관적제한성으로 하여 봉건적인 신분제도와 봉건왕권을 옹호하려는 경향,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왜적에게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 독립을 이룩하려는 투철한 립장을 지니고있지 못한것과 같은 부족점들이 적지 않게 반영되어있다.

그러나 이 시기의 한자서정시들은 반일투쟁을 벌리면서 여러가지 작품들을 창작한 반일의병장들과 진보적인 문인들이 창작한것으로 하여 당대 사회현실과 인민들의 사상감정을 리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있다.

뿐만아니라 지난날 우리 인민의 반침략애국주의주제의 문학을 비롯한 이 시기 문학을 더욱 풍부히 하는데 적극적인 기여를 하였다.